

2020년 제 1 차

이 사 회 회의록

- ❖ 일시 : 2020. 2. 4.(금) 11:00
- ❖ 장소 : 올림픽공원 테니스장 내 회의실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Korea Tenni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제1차 이사회 회의록

2020. 2. 4.

이범주 사무국장 :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범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사회에 참석해주신 여러 이사님께 깊이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2020년도 제1차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성원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이사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동운 수석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태열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경로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수민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용로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복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남동수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정훈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창문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근태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혁민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회 회장님이신 박정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범주 사무국장 : 재적이사 23명중 12명 참석으로 규약 33조에 의거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박정관 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제1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000))

이범주 사무국장 : 다음은 회장님께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박정관 의장 : 요즘 우한폐렴 때문에 세상이 뒤숭숭 한 와중에도 참석해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협회는 이사님들 덕분에 많이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협회가 어려운 살림에서 시작하여, 작년 결산 후 2천 6백여만 원 정도의 잉여금이 생겼습니다. 올해는 좀 더 노력해서 차후에 협회장이 누가 되시던 협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회의 잉여금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이 7억 정도 되었는데, 현재 예산이 1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올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사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범주 사무국장 : 다음은 보고사항 제 1항 「전차 이사회 초록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관 의장 : 회순에 따라 「전차 이사회 초록」 보고를 사무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범주 사무국장 : 네. 배부해드린 안건자료 2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차 이사회 초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16시 30분, 올림픽공원 테니스장 내 회의실에서 재적이사 23명 중 13명이 참석하여 2019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고안건으로는 「전차 이사회 초록」 및 「임원 사임」을 원안대로 접수해 주셨으며, 심의 안건으로는 「2020 국가대표 선발 계획 확정(안) 심의」, 「임원 보선(안) 심의」를 원안대로 의결하고 17시 30분에 폐회하였습니다. 이상 전차 이사회 초록을 보고 드립니다.

박정관 의장 :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회장 및 이사 : 없습니다.

박정관 의장 : 사실, 전차 이사회 때 「퓨처스 대회 개최의 건」에 대해 의결을 했었는데 여기에 빠져있어서 다들 의견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의사봉 000))

이범주 사무국장 : 다음은 보고사항 제2항 「법제상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관 의장 : 법제상별위원회 위원 구성변경의 건에 대해 사무국장 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범주 사무국장 : 본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 11조 1항 전문체육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는 조항 지속유지로 인한 위원 구성 변경의 건입니다. 법제상별위원회의 김태열 위원장, 한윤자 위원이 전문체육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셔서 부득이하게 두 분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명단은 안건자료 2페이지를 참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제상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한국테니스지도자협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웅태 위원장으로 모셨고요, 부위원장으로는 협회 부회장이신 이용로 부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법제상별위원회에는 법 쪽에 계시는 분이 있어야 해서 이상호 법무법인지울 변호사님을 모셨고, 황성호 신한대학교 교수를 새로이 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오희심 이사님을 위원으로 모셨습니다.

김태열 부회장 : 그 전에 다른 위원과 겸임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범주 사무국장 : 두 개까지 겸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생겼었는데, 전문체육위원만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는 조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박정관 의장 : 그런데 이 명단의 구성은 저희 협회에서 한 것인가요?

이범주 사무국장 : 예 그렇습니다.

박정관 의장 : 지금까지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협회 부회장님들을 위원장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분이 협회 부회장이나 임원도 아닌데, 굳이 김웅태 국장을 위원장으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범주 사무국장 : 우선 경험이 많으셔서 위원장으로 선정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은 (안)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말씀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로 부회장 : 김웅태 국장 같은 경우에는 전 대한테니스협회 국장을 하셔서 징계나 선발과 관련된 규정들을 알고 계셔서 사무국에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관 의장 : 규정이야 찾아보면 되는 부분이고, 다른 위원회의 위원 자리는 협회 부회장님들이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분이 협회 부회장이나 임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자리를 맡길 이유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사님들이 다 동의하신다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바꾸는 것이 어떨까요?

부회장 및 이사 : 예 동의합니다.

박정관 의장 : 다른 분들은 의견이 없으십니까?

김태열 부회장 : 사전에 수석부회장님과 회장님께서 협의를 못 하셨나요?

박정관 의장 : 바빠서 협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동운 수석부회장 : 저도 전국을 돌아다니느라 협의를 못 했습니다.

박정관 의장 : 사실 보기에 조금 그렇습니다.

박창문 이사 : 그러면 김웅태 국장님과 는 이야기가 되어있나요?

박정관 의장 : 이야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사회에서 낸 의견을 통보하면 되는 부분이라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박창문 이사 : 그러면 방금 얘기한 내용대로 이용로 부회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웅태 국장이 부위원장의 자리에 있더라도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 부위원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관 의장 : 예 부위원장이니까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외부인력을 불러서 쓰는 것에 대한 의견을 이사님들께 여쭙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법제상별

위원회 위원 명단에 위원장에 이용로 부회장님, 부회장에 김웅태 국장님을 선정하고, 위원으로 이상호, 황성호, 오희심 이상 세 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000))

이범주 사무국장 : 다음은 회순에 따라 회장님께서 심의안건 제1호를 상정하시겠습니다.

박정관 의장 : 심의안건 제1호인 「2019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안) 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000))

박정관 의장 : 우선 세부적인 자료를 보시고 실제 「2019년도 행정 및 회계감사 결과」를 이송 감사님께서 감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요즘 한참 바쁘신데도 대표 회계사님 나오셔서 내용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송 감사 : 예 감사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감사 내용이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본 협회 규약 제29조 5항, 회계운영규정 제25조 1항에 의거하여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의 2019년도 회계부분 전반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대한민국 감사 기준 및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바, 회계부분은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관 의장 : 감사합니다. 앞부분에 5~7페이지에 있는 행정감사보고는 배포해드린 행정감사보고서를 참고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 및 회계감사를 도와주신 두 감사님께 감사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9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안건은 저번 주 금요일에 배포해드려서 조금 늦었지만 작년 사업에 결산에 대한 내용으로 궁금하시거나 의의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로 부회장 : 안건의 페이지 수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나눠주신 유인물을 보고 궁금한 사항만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건 13페이지를 보면 대구오픈이 코리아오픈, 부산오픈보다 자부담 금액이 많은 이유와 대회 평가는 사무국에서 평가하는 것인지 지자체나 다른 단체에서 평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이천 시합과 경기도지사배 대회를 갔을 때 봤던 것이 있습니다. 홍보를 위해 홍보물을 설치하려면 경기장 외부에 부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경기장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볼 수 있게 경기장 내부에 현수막을 부착하는지, 그와 관련하여 협회에서 지자체에 사용처를 정해서 주는지 알고 싶고요. 국가대표 훈련 예산을 봤을 때 2억이 넘는 금액이지만 사용처가 상세하게 적혀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범주 사무국장 : 대구에서 자부담 금액이 많은 이유는 참가비를 저희 쪽에서 부담하여 지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수 이사 : 각 지자체 정산 내역이 협회 쪽으로 올라오나요?

이범주 사무국장 :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수민 부회장 : 대회 평가 부분도 올라오나요?

이범주 사무국장 : 예, 대회 평가 부분은 저희가 기금 지원을 받으면서 결과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장애인체육회 자체에서 양식이 나오고 자체적으로 설문 조사도 진행합니다. 또 장애인체육회 기본 평가가 나올 때 중앙사무국에서 내려가서 같이 평가하고 있는데, 평가 시기에 대회개최 시 미비한 부분이나, 전년도 대비 개선된 부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정관 의장 : 사실 이 정도의 자부담 금액은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인데,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협회 측에서 다 사용해야 하는 건지 잉여금을 남겨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범주 사무국장 : 그동안은 대구장애인테니스협회뿐만 아니라 전신석복지재단이 함께 후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협회가 안된 부분이 있어 자부담 금액이 큰 것 같습니다.

박정관 의장 : 정리하자면 금액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여쭙보는 것 같습니다.

이범주 사무국장 : 정산보고서 상에서는 예산집행 부분 중에 임차료의 금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후원 물품의 경우에도 협회 쪽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정관 의장 :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부회장 : 협회 쪽과 복지재단 쪽에서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정동윤 수석부회장 : 저번에 이범주 사무국장과 제가 대구장애인테니스협회를 다녀왔는데 올해까지만 같이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예산만 협회 쪽으로 넘기겠다고 전신석 복지재단장과 협의하였습니다.

박정관 의장 :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 뒤 대구장애인테니스협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로 부회장 :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 대회를 진행할 때 지역에다 외부에다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나 친인척들만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내부에만 홍보물을 부착하는 불필요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육교 같은 곳에 홍보물을 설치한다던가 하도록 지적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지방비와 자부담 금액을 3천여만 원이나 사용하는 대회치고는 자금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박정관 의장 : 교부금은 대부분 국가에서 지정된 상위업체에서 내려옵니다. 그 부분 역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저희 본부 쪽에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주 사무국장 : 말씀해 주셨던 국가대표 훈련예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수 일일 수당이 6만 원, 코치는 12만 원, 트레이너 10만 원, 국가대표 감독이 15만 원, 훈련파트너수당이 5만 원으로 7, 80%의 대부분 예산이 수당과 급량비 쪽에서 빠져나갑니다. 나머지는 훈련 용품 및 피복비 등에 들어갑니다.

문경로 부회장 : 그렇다면 대부분 수당과 급량비, 용품비에서 나간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범주 사무국장 : 라켓, 휠체어, 그립, 스트링 등 여러 부분에서 필요한 만큼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관 의장 : 혹시 다른 의견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부회장 및 이사 : 없습니다.

박정관 의장 : 없으시다면 「2019년도 사업계획(안) 및 결산 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000))

이범주 사무국장 : 다음은 회순에 따라 회장님께서 심의안건 제2호를 상정해 주시겠습니다.

박정관 의장 : 심의안건 제2호 「2020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000))

박정관 의장 : 이 안건 역시 유인물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가맹단체 사업별 예산지원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전년 대비 예산을 계획하였으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시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들은 이범주 사무국장이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주 사무국장 : 2020년도 변경된 사업 부분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시리즈대회 서울, 대구, 부산오픈 예산이 전년 대비 1800만 원 증가하여 총액 1억 2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증가한 예산 1800만 원 중 대구, 부산오픈에 각 400만 원씩 증액하여 3400만 원이 되었고, 서울코리아오픈에 1000만 원이 증액하여 6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또 장애인 가맹단체 지원사업 중 사무국 직원 인건비 10% 증액하였고, 행정운영비는 매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변경된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드립니다.

박정관 의장 : 이게 사무국장이 안건을 결정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국제 시리즈대회에서 증가한 기금의 분배는 이사회에서 의결할 사항입니다. 말씀드렸다

시피 총 180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1천만 원에서 1억 28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서울코리아오픈에 1000만 원, 대구, 부산오픈에 각 400만 원씩 증액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작년에는 종목별 통합대회로 개최했던 건인데, 이번에 규정이 바뀌어서 협회에서 전문엘리트체육대회로 전국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열렸는데 올해는 대구에서도 신청이 들어와서 금액을 일부 조정해야 하기에 이 사안에도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대구오픈에서 자부담 금액이 많은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 서울오픈에서 기존 2000만 원, 대구오픈에서 12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이를 서울은 1800만 원 대구 1400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하나 있는데 서울지부장님 자리가 공석이라 대회개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사회에서 의견을 내서 다른 지역에서 대회개최를 희망하고자 하면 대의원 총회를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 급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직원들 급여가 굉장히 적은편이라 10% 정도 급여가 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무국장 급여를 협회에서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일반 직원은 20만 원 지원했던 금액을 이사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 잉여금이 2600여만 원이 남아서 사무국장은 기존 50만 원에서 증액하여 8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추과장은 20만 원에서 증액하여 50만 원 지원해주고, 일반 직원은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사무국급여를 올리하고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서도 아마 예산이 변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바뀐 부분이 이 세 가지 부분이니까 기타 예산(안)에 각자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부회장 : 직원들 급여 중 퇴직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박정관 의장 : 현재 계속 충당하여 적립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분들은 의견이 없으신가요?

문경로 부회장 : 사무국장 급여를 회장님 20만원 마저 올려서 100만원 맞춰주시죠?

박정관 의장 : 그거는 제가 임기 끝날 때 내년쯤에 어떻게 ..지금 잉여금이 2천6백만원정도 뿐이 없어서.. 한 5천만원은 그래도 넘어야지 .. 어느정도..

이수민 부회장 : 차차 또 다음에 또 올리는걸로..

김태열 부회장 : 체육회에서는 안 올랐던가?

박정관 의장 : 체육회에서 10%를 올려줬는데 이게 최저임금이 올라서 오른 것이고요. 그만큼 협회 상황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박창문 이사 : 회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정관 의장 : 이사님들 동의해 주시면 원 안건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0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000))

이범주 사무국장 : 다음은 회순에 따라 회장님께서 심의안건 제3호를 상정해 주시겠습니다.

박정관 의장 : 심의안건 제3호 「심판자격관리, 임명 규정 제정(안)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000))

박정관 의장 : 사무국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주 사무국장 : 장애인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의 경기지도자 자격증, 심판 자격증, 등급분류 자격증들은 그동안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민간단체 자격증은 관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결과 민간자격을 등록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본회 심판자격 관리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자격을 등록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제상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판자격관리, 임명 규정 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안건자료 제3호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자격 관련 근거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민간자격등록지침 기준에 따르기 위해 심판자격관리 규정(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문경로 부회장 : 협회 심판이 지금 몇 명인가요?

이범주 사무국장 : 심판이 지금 40명 내외입니다.

박정관 의장 : 협회 차원에서 예전에 선수를 하였던거나 협회 측에 기여하신 분들에게 자격증을 따는데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요?

문경로 부회장 : 지도자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심판은 체어를 올라가야하기 때문에 심판자격증을 따는 선수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범주 사무국장 : 그런 부분은 선수위원회나 지부와 미팅을 할 때도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임심판제도도 있고 해서, 꼭 단계를 올라서 심판자격을 얻는데 도전하고 싶은 선수들이 있다면 협회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심판강습회를 개최할 때에도 선수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관 의장 : 제 말은 선수 생활을 마치고 심판자격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이 진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생활하는 데 있어 좀 더 원활하게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범주 사무국장 : 그렇다면 선수 출신의 지원자들이 상임심판 등급을 취득하는 절차나 자격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시도지부에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관 의장 : 네 그럼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합시다. 국제대회가 겹치는 경우도 많다 보니, 심판을 구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식으로 심판을 확보하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의안건 제3호 「심판자격관리, 운영 규정 제정(안) 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합니다.

((의사봉 000))

박정관 의장 : 사실 앞쪽에 2020년도 사업계획안 58페이지에 퓨져스대회에 대한 내용을 지나쳤습니다. 경기도에서 개최하려고 했는데 올해 접수 일자가 작년 10월까지였습니다. 우선 내년 대회 접수를 올해 4월까지 받고 있어서 올해

는 지금 신청을 해보는데 하반기에 올해 개최승인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지사배로 퓨처스를 개최하기로 해서 안건을 올렸고, 지방비 2000만 원에 자부담 5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약 3500~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양질의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이에 중앙협회에서 조금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개최가 승인된다면 서울, 부산, 대구오픈은 1800만 원 증액된 금액이 없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1000만 원 정도를 퓨처스대회에 지원을 해서 3대 국제대회에서 하나를 추가해서 4개로 개최하여 국내 선수들이 포인트를 확보하여 랭킹을 하나라도 더 올릴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사님들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문경로 부회장 : 회장님 이 퓨처스급이면 외국선수들 1~2명밖에 안들어와요. 우리나라의 일반선수들의 점수 때문에 이거 하자는 건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까지 이게 머 상금도 적은 대회인데 3천5백~ 4천가지고 한다는건 좀 금액이 많은데요

박정관 의장 : 금액이 많아요? 그런데 선수들을 위해서 국내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랭킹을 올리기 위해서.

이용로 부회장 :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실상 가장 큰 장애인체육 전반적인 문제가 선수 고령화거든요 저희 선수층 평균 연령이 40초중반 될 꺼예요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머냐면 오히려 이런 시합 좋은데 국내선수들의 포인트 관리 차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3개 대회를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 아니더라도 국내선수들이 투어를 다니면서 포인트를 올리기 위해서 다니는 선수들이 몇 명이나 있냐 이거죠. 한두명을 위해서 기금을 쓴다 문제가 될거 같고요. 지금까지 봤을 때 선수들이 변화가 없는게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되는거 같고요. 저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오히려 이런 시합도 좋지만 신인선수 발굴 같은데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면 협회가 선수들을 지금 보면 제가 선수시절부터 보면은 지금도 대부분 다 아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될까 그러고 만약에 포인트를 가지고 한다는데 과연 이 친구들이..

국내 실업팀들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는 외국이나 똑같은 거 거든요

결국은 지금 투어에 나가는 선수들이 포인트를 가져가는 부분들이고 나머지 친구들도 마찬가지로라는 건데 그런거에서는 이사님들이나 회장님 의견을 물어 보고 싶은 거죠. 과연 이기금을 들여가지고...활성화가 안되면 안되는 거잔아요

충분히 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인데 도 조금더 발전적인 부분들을 가져가야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봤을 때 지금 문경로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투자하기에는...

박정관 의장 : 고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두가지적인 문제를 고려해 봐야 하는데 첫 번째는 3개 국제대회를 고 문제 때문에 떨어뜨려서 한해를 시행을 했는데요. 국제연맹에서 이거는 그렇게 떨어뜨려서 하지마라고 정식 요청이 왔습니다. 떨어트린거는 아시겠지만 장애인체육회 감사에서 그거를 떨어트려라고 지적사항으로해서 저희들이 한해에 그거를 떨어트렸거든요.

그랬더니 인제 국제연맹에서 이 3개 대회는 선수들 저거를 위해서 며 여러 가지 일정이나 거기서 정해주는데 일본에 일정이나 이런 것을 국제대회 전체를 감안한 거 같아요.

정식 연맹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사항입니다. 그래서 한해하고 어쩔수 없이 그 의견들은 이미 나왔던 의견들인데 아 저희들이 연맹에 의견을 받아서 어쩔수 없이 다시 작년에 붙였던 건이었고요.

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좋은 건 같애여 우리 선수들 선수들 많이 나오면 기량을 위해서 외국에 뛰어난 선수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건 바람직한 내용들인데.. 3개 대회가 묶여있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들어온다 이거죠.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우리 국내선수들이 사실은 랭킹을 받지를 못한다. 그래서 나온게 사실은 퓨처스급 대회를 한개내지 두 개정도를 유치해서 가을에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외국선수들 거의 들어오지 못하니까 국내선수들 랭킹을 올리기 위해서 하자 그거를 경기도에서 사실은 오케이 한겁니다. 사실은 경기도에 예산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지방비 2천만원하고 자부담 5백만원을 퓨처스급대회를 오픈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사실은 마련한 부분이 있어서 두가지를 고려는...그 이야기는 저희들 해묵은 숙제 같아요.

박창문 이사 : 요부분은 집행 부분은 방법론 같은데. 하나정도는 만들어서 선수들한테 배려하는 대회로 장을 열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대회를 하나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문경로 부회장 : 아까 이용로 부회장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과연 랭킹을 따러 달려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실업선수들 하고요. 군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다음에 시도체육회에서 나오는 사람들 아니면,

내돈 들여서 내랭킹을 실력을 향상을 위해서 하는 선수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꺼 같아요?

박창문 이사 : 많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로 부회장 : 거의 없어요

박정관 의장 : 아니 국가대표 많이 나갑니다.

문경로 부회장 : 지자체에서 나오는 돈하고 이런 거 말고는 대표팀, 실업팀 거의.. 그 전에는 실업팀 없을때는 자기들이 자비로해서 랭킹 올리려고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실업팀이 생기면서 한계가 딱 도달했거든요.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가서 랭킹을 따야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랭킹 자체가 한계가 있어요. 퓨처스를 나가서 어디를 나가서 그 한계에 부딪치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안나가는 그럼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시합을 열어주는 있던 시합인데 날 바꾸는건데 과연 여기에다가 협회 예산을 기금을 투입해야하나 이문제거든요. 우리가 3개대회 묶여 있는 예산에서 빼서 하겠다는 부분은 거기다가 재팬오픈 까지 묶여서 4개 큰시합이 덩어리가 큰건데. 대게 전문체육을 하는 사람들은 경쟁력을 갖춘 대회에서 따야지 랭킹이 더 올라가는데 비슷한 시합 나가서 해야 포인트 추가 안되니 랭킹이 안올가니 메이저급 대회 나가서 랭킹을 따와야 지 많이 우승을 해야 랭킹이 쭉 올라가지 축소해서 할필요는 없다 생각 키울려면 키워야지 그래서 코리아오픈이 이렇게 많이 큰거거든요

박창문 이사 : 내용을 충분히 알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사실은 알면서 이대회를 하자고 제안하는 부분이고 왜냐면 이분분은 코리아오픈이나 다른대회 저희 그 선수들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부여하는게 어떻겠냐 이런 부분인거 같은데. 내용은 이미 알고

박정관 의장: 아니요 사실은 이사회때 이거를 의결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전차록에 안되 있어서 전번 이사회때 퓨처스급 지원은 이미 의결을 했던 사항이고요 아마 참석을 안하셔서 그때 나왔던 의견으로는 어떻든 지금 그렇게 못하니까 국내선수들이 한명이라도 랭킹을 올릴수 있는 퓨처스급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이사회때 의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만 이번에 경기도에서 열리니까 남동수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예산을 천만원을 지원해주자 말자 이거만 예 이미 대회 하는 것은 의결을 해서 결정이

이수민 부회장 : 현재 대회개최에 2500만 원이 부담되는데. 1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3500만 원까지는 들지 않는다는 거 같습니다. 단위를 낮춰서 비용을 줄일 순 없을까요?

박정관 의장 : 이 부분은 사무국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최소 작은 대회라도 3천5백은 든다고 얘기하는데....

문경 회장 : 상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범주 사무국장 : 상금은 12,000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로 부회장 : ITF에서 일단은 대회를 받는지 안받는지 알아봐야지

박정관 의장 : 그래서 늦었지만은 작년 10월까지 신청을 했어야지 올하반기에 떨어지는데 사실은 작년 12월달 이사회에서 의결이 난 상황에서 지금 급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된다는 가정하에 안된다면 어쨌든 내년 2021년도로 넘어갈수 뿐이 없습니다.

박창문 이사 : 국장임 이대회를 올해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범주 사무국장 : 아직까지 정해진건 없습니다.

박정관 의장 : 아직까지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이범주 사무국장 : 우선 협회에서 자부담으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지를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개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협회 잉여금이 2600만 원인데 이번 시리즈대회 이후에야 잉여금이 얼마나 남을지 알 수 있습니다.

이수민 부회장 : 1800만 원의 지원되는 금액은 전부 대회개최에 써야 하는 건가요?

박정관 의장 : 증액된 금액은 원래 3대 국제시리즈대회 개최에 쓰라고 나온 예산인데, 저희가 협의를 통해 4개 대회에 운영할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수민 부회장 : 나머지 세 개의 대회는 자부담 없이도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이범주 사무국장 : 예 그런데 협의가 될지, 안될지 미지수라 그 부분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장애인테니스협회 정재철 전무이사에게도 중앙협회에서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해서 수원이나 다른 경기도 단체에서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없겠냐 말해놓은 상황입니다.

박정관 의장 : 이사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태 이사 : 근데 이게 국제대회라고 하면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데로 ITF에서 주관을 하고 있을텐데 그레이트에 따라서 최소 들어가는 비용이 상금부터 해서 규정이 있을꺼 아닙니까? 그런거에 기준을 해서 예산을 잡으면

이범주 사무국장 :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짜면서 이전에 진행했던 대회처럼 숙박비, 급량비, 상금 이런 부분들을 총합해서 예산을 내본 결과 3000~3500만 원 정도 필요할 거라고 나왔습니다.

이근태 이사 : 국내선수들의 랭킹을 올리기 위해서 주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인데 국제 선수들을 초대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관 의장 : 우선 초대는 하는데 외국 선수들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이범주 사무국장 : 이 대회 자체를 분리하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다른 대회하고 겹치지 않는 날짜에 넣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수민 부회장 : 어쨌든 상금이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중앙협회에서 자금을 낭비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해선 안 됩니다.

이범주 사무국장 :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타이트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김태열 부회장 : 이게 전부터 선수들이 강력하게 요청해서 퓨처스대회를 개최

하게 되어 경기도 측에서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참가비를 걷거나 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절약하도록 설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수민 부회장 : 네 자부담 금액을 올리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경로 부회장 :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결정해 주시고요. 서울오픈 건이 몇월까지 결정을 해줘야 할거 아니에요?

이범주 사무국장 : 제가 아까 빠트린 부분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서울오픈이 매년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서 매년 1000만 원을 생활체육사업 부분으로 지원받았었습니다. 종목통합대회가 어울림하고 전문체육대회로 개최되다가 올해부터 전문체육으로 개최가 되어야 해서

개최가 되어서 서울시 자체에서 지방비로 1000만 원을 생활체육사업으로 받던 거라 이제 못 받게 되어서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서울은 할 수 없고 대구는 신청이 들어왔고 다른 한 군데를 찾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태열 부회장 ; 금액은 우리 사무국에서 조정해서 하는걸로 하고

박정관 의장 : 그렇다면 절충해서 퓨처스대회에 500만 원 정도 협회 예산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문경로 부회장 : 이 시합의 총상금이 3000불입니다. 총상금 3000불의 시합에 4천만 원을 쓴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정관 의장 : 경기도 자체에서는 이미 2500만 원이 확보된 상태이고 이사회에서는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그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이범주 사무국장 : 부회장님, 국제투어대회 상금이 3000불이긴 한데 전국대회 예산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민 부회장 : 부회장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건 중앙에서 예산을 달라는 대로 다 주지 말고 어느 정도 조정해가면서 줘야 예산을 줄이는 게 맞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범주 사무국장 : 예 이 부분은 협회에서 같이 사업을 계획하고 하니까 충분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태열 부회장 : 저희 경기도지사배 대회 때는 지원금액이 어떻게 됐었나요?

이범주 사무국장 : 작년에는 120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기금 2000, 지방비 1200, 자부담 500으로 총 대회 예산이 3700만 원이었습니다.

박정관 의장 : 작년 이사회 때마다 매번 선수들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사회 때 의결했었는데, 신청 시기가 늦어져서 현재 예산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겁니다. 아무튼 절충해서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하죠.

부회장 및 이사 : 예, 그렇게 하죠.

박정관 의장 : 예, 이 건은 그렇게 의결하는 거로 하고. 또 빼먹은 것이 있는데 47페이지를 보시면 이용로 부회장님이 의견을 내주신 신인선수 발굴캠프의 건입니다. 재활전문병원과 연계해서 제일 처음 열리는 코리아오픈 3일 차부터 테니스에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벤트성으로 레슨과 휠체어 테니스를 소개해주는 행사를 계획하려고 합니다. 코리아오픈때 이 행사가 좋은 효과가 나온다면 코치와 협의해서 대구나 부산에서도 같은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선수의 고령화가 제일 문제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 협회에서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런 이벤트성 행사를 진행해서라도 신인선수 발굴을 하도록 사업을 계획했었습니다. 이걸 말씀드린다는 걸 깜빡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준비된 안건은 다 심의되었고, 혹시 기타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타사항 중에 작년 협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CMS 정기후원을 만들었습니다. 한 명당 5천 원씩 해서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하는데, 올해 약 1000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1년에 약 5천만 원씩 잉여금이 모이게 되어, 협회 살림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차기에 누가 회장을 맡더라도 협회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회장인 제가 100명을 책임지고 부회장님들이 50명씩, 이사님들이 30명씩 각자 힘을 조금씩 보태주신다면 880명 정도의 인원이 나옵니다. 에이 사무국에서 120명 정도의 인원을 확보한다고 하니까 저희 장애인테니스협회를 위해서 후원회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사님들이 동의를 해주시게 된다면 올해 중점사업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부회장 : 말이나 전화로 권유를 하면 인원을 구하기 힘드니 관련 서류나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관 의장 : 예 저도 혼자서는 아무리 해도 안되어서 직원들에게 부탁해서 가입했습니다.

이범주 사무국장 : 필요하시다면 오프라인 신청서 양식이 있기 때문에 보내드리고 간단한 인적사항만 적어주시면 협회에서 확인 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부회장 : 추가 적으로 요즘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맡기는 것 꺼리니까, 신청서 마지막에 요청 시 CMS가입 후 개인정보는 파기하겠다고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범주 사무국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관 의장 : 저희 김태열 부회장님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모이는 자리가 많으시다 보니까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조금 더 협회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5천 원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기에, 주변 2, 30명 정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동수 이사 : 최소 금액이 있는 건가요?

박정관 의장 : 최소 금액은 천 원인데 5천 원 이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로 부회장 : 후원자들에게 장애인체육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후원자들에게 조그마한 기념품이나 배지를 선물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박정관 의장 :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용로 부회장 :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여서 그 배지를 가지

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장애인스포츠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정관 의장 : 이 기부금은 100퍼센트 자 공제가 됩니다.

정동윤 부회장 : 제가 한 군데 활동하는 곳은 팜플렛을 만들어서 안내문을 구체적으로쓰고 거기에 신청서도 첨부되어있는데 그런 형태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정관 의장 : 네, 그럼 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정관 의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이사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000))